

# 왕십리 시장

- 대담자: **엄 기 방**  
(왕십리시장 운영위원회장)
- 사 회: **이 두 홍**  
(본협회·홍보2과장)
- 기 록: **송 영 기**  
(본협회·홍보부)



어느 조직, 어느 기구를  
막론하고 거기에는 항상 우열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아무런 탈없이 이상적으로 잘  
이끌어 나가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잘 될 것  
같으면서도 잘 안되는 사례가  
더러 있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래도 우열이란  
우연의 산물은 아닌 모양이다.  
그래서 사실을 찾아 나섰다.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동의  
왕십리시장운영위원회  
엄기방회장을  
관리사무실에서 만났다.

사 : 먼저 시장개황부터 좀 살펴볼까요?

엄 : 저희 시장은 지난 1969년 12월 건축되었을 당시만하더라도 조흥은행소유로 있었습니다. 개인에게 분양되기 시작한것은 75년 부터였으며 83년 1월 19일 분양이 모두완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6백9개 점포(등기상)모두가 각 개인앞으로 분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점포소유주들로 구성된 운영위원회가 시장전체를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각 점포주들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 : 평소 시장입주자들에 대한 소방훈련은 어떻게하고 있습니까?

엄 : 입주자 전체에 대한 소방훈련은 방화관리자가 별도로 선정되어 있으므로 이들로 하여금 월 2회 정기적으로 훈련을 실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주자 가운데 따로 조직되어 있는 부녀소방대에 대해선 월1회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관할 소방서에서는 연2회에 걸쳐 소방차를 직접 출동시켜 화재사고에 대비한 소방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화기를 많이 취급하는 겨울철에는 구정을 전후해서 2개월 동안 집중적으로 화재예방을 위한 제반 노력을 경주하고있지요.

사: 방화시설상태는 어느 정도입니까?

염: 방화시설은 거의 완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시설 대부분이 갖춘지가 오래된 탓으로 일부 시설은 손을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정계획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얼마전 소방검사시에도 지적을 받았습지만 우선 이 지적 부분에 대한 보수를 6월말까지 완전히 끝낼 계획입니다.

사: 점포입주자들의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도는 어느 정도입니까?

염: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전체입주자들이 한 사람 빠짐없이 모두 화재보험에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의 점포입주자들중 일부는 아직도 화재 보험에 대해서 도외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내 방송시설등을 통해 계속 홍보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보험계약 갱신시에는 개인면담도 하면서 설득작업을 펴지요. 그래도 부진할때는 직원을 보내서 직접 보험 계약을 촉구하기도 합니다.

그렇게한 결과 저희 시장은 현재 90%정도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10%는 아주 어려운 영세상인들로서 이러한 사람들에 대한 대책을 운영위원회에서 연구중에 있습니다.

예를들면 관리사무실에서 보험료를 먼저 대납한 후 매월 조금씩 납부토록 한다든가 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사: 일반적으로 시장은 화재위험이 많은 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 화재보험에 대한 인식이 잘 되어 있지 않아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회장님께서서는 어떤 방법으로 부모울을 높여왔는지요?

염: 예, 그것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지만 공문을 내 보내고 개인면담을 하는 과정에서 물론 협조를 잘해주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입주자도 더러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적극전을 펴는 수밖에 없었지요. 때로는 제가 직접 나서서 화재보험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사: 지난해 12월 저희 협회에서 부모촉진 캠페인을 벌였을때 회장님께서 많은 협조를 해주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특히 1백만원이란 거액의 보험료를 대납시키면서까지 보험 계약을 유도해 주셨다는데 그후 문제는 없었는지요.

염: 예, 별다른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화재보험에 가입하는것 자체를 기피하려는 사람이 일부 있어서 그런사람들을 설득하다 보니 제가 마치 화재보험협회 직원이라도 되는 것처럼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화재보험이 우리 생활에 왜 필요하며 또 협회에서 취급하는 신체

## ‘화재안전점검은 결과적으로 재산을 보호 유지하는 길이며 검사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결국은 이득이 되는 일이다.’

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이 어떠한 제도라는 것을 잘알게 되어 꼭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사: 저희 협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화재안전점검에 대해서 바라고 싶은 의견이 계시다면?

염: 화재안전점검은 연1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혹시 미비점이 있으면 점검을 하는 과정에서 바로 지적해주는 것이 좋을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는 다 잘됐다고 안심하고 있지만 전문가들이 보았을 때에 또다른 문제점이 도출될 테니까 잘못된점을 시정하게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재산을 보호 유지하는 길인셈이지요.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지도해 주셔야 하며 건물에 대한 안전점검은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물론 소방서에서 검사를 나오더라도 귀찮다고 생각해서는 안될것입니다. 결국 저희들에게 이득이 된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사: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대도시에는 시장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장을 운영관리하는 책임자로서 평소느낀 점이 계시다면 어떤 것일까요?

염: 어느 도시를 막론하고 일단 시장이라고 하면 화재에 대한 취약점이 가장 많은 곳으로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반 보험회사에서는 보험 계약을 기피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만큼 대우를 못받고 있는 셈이지요. 다행스럽게도 화재보험 협회에서 불날 염려가 많고 화재에 약한 요소들을 많이 안고 있는 시장건물에 대해 보험계약을 받아주고있어서 시장으로서는 정말 고마운 일이 아닐수 없습니다.

다른 시장의 경우는 몰라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시장에서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느시장을 막론하고 보험에 가입해서 안심하고 영업을 할수가 있어야하며 또한이재를 당하면 곧 보상을 받을수 있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난 83년 12월중순 화재가 났던 대전시장만하더라도 구

모가 상당히 큰 시장인데 보험에 대해 그토록 무관심 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관리책임자가 조금 생각을 잘못 했던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상인들이 아무리 보험계약을 하지않으려고 하더라도 관리실에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느냐에 따라 달라질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상인들의 보험에 대한 인식도는 낮은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관리책임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점을 이 기회에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사: 더하시고 싶은 말씀을 꼭 터놓고 하시지요.

업: 약간 방향이 다른 얘기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대체로 보험에 대한 홍보가 아직도 덜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많이 갖게 됩니다.

저희 시장만 하더라도 처음에는 은행소유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보험계약의 일괄처리가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개인분양인데다 많은 입주자들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설마 어쩌라!」 하는 생각

이거든요. 이러한 생각이 바로 홍보가 덜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아닌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험계약을 갱신할때마다 바로 이러한 생각이 애로로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화재보험협회에 거듭 바라고 싶은 것은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유인물등을 제작하게 되면 그때그때 빠짐없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시장은 방송시설이 잘 되어있기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각종 홍보자료를 최대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요컨대 중요한 것은 규정이나 당국에서 요구하는 소화시설등은 당연히 규격대로 설치하거나 갖추어야 할 것이며 시장사람뿐만 아니라 특수건물 소유주라면 모두가 화재보험에 가입해서 재난으로부터 인명과 재산을 보호받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일 것입니다.

사: 오랜 시간동안 좋은 말씀 감사했습니다. ❖

## 생활의 지혜

### 욕실벽의 곰팡이 방지

○... 욕실의 벽에는 언제나 습기가 있고 별로 별이 들지 않으며 통풍도 좋지 않으므로 곰팡이가 번식하기 쉬운 곳이다.

욕실 벽의 곰팡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제로 씻은 다음, 희석한 부엌용 표백제를 바른다. 잠시 후 뜨거운 물을 끼얹고 닦아내면 오랜동안 곰팡이가 발생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 생선은 굵기전에 소금물로

○... 생선을 소금구이할 때는 흔히 소금을 생선 위에 뿌리고 하는데 이 방법보다는 물과 소금분량의 비율이 10:1이 되는 소금물에 10분 가량 담갔다가 구우면 소금기가 속속들이 배어들어서 살도 단단해지고 맛도 훨씬 좋아진다.

### 잡초는 소금으로

○... 겨우내 방치해둔 화단을 정리하다보면 구석이나 바위 틈같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서 자라고 있는 잡초를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골치아픈 잡초를 제거하려면 소금을 흠뻑 뿌려서 뿌리까지 말라 죽게하거나 국수 또는 야채 삶은 물을 잡초위에 끼얹으면 깨끗이 제거된다.

### 전화기 손질은 식초로

○... 전화기는 여러사람의 보이지 않는 때와 세균이 묻기 쉬우므로 가끔 알콜로 소독을 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화기를 손질할 때는 헝겊에 식초 2방울을 묻혀 닦아두면 정전기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먼지가 묻지 않는다. 전화기 뿐만 아니라 각종 플라스틱제품의 정전기도 이 방법을 사용하면 먼지가 쌓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